

# 목포시, 유달산 일등바위 일원 '명승' 지정 추진

자연 환경·가치 타당성 학술연구용역  
유달산 브랜드 높이고 문화유산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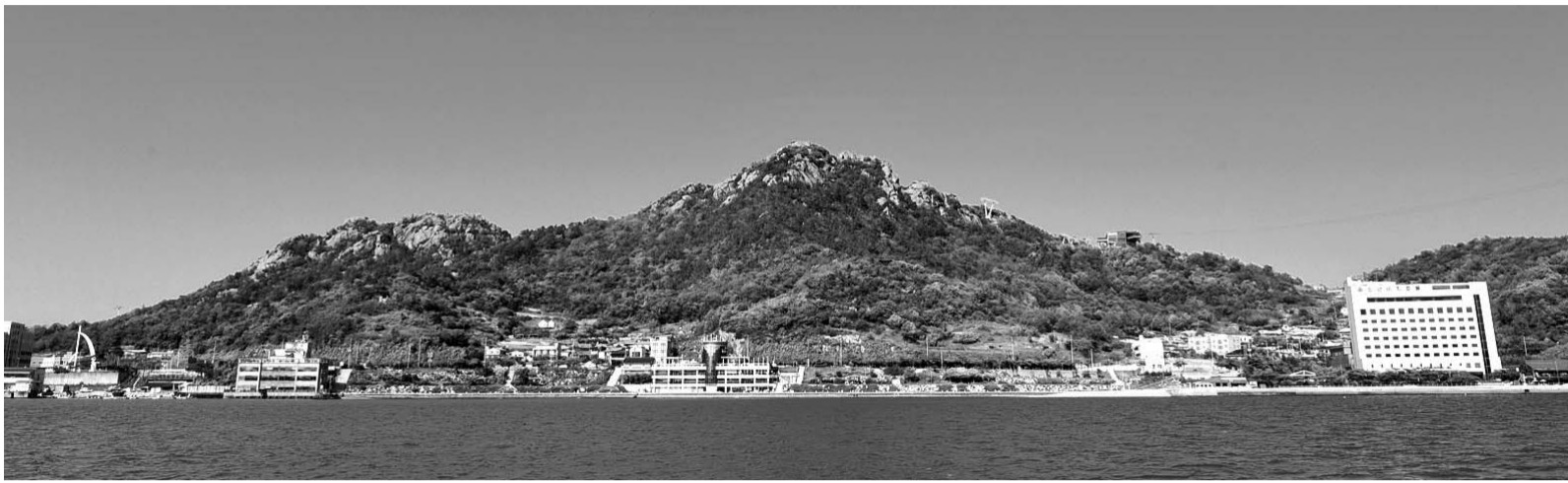
목포시가 유달산 일등바위 일원을 국가 '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유달산은 서남해안의 바다와 섬, 목포 도시를 한 눈에 조망 할 수 있는 곳이다.

봄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피어 꽃 축제가 열리는 등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목포의 명산이다.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일괄(보물 제2011호), 목포 오포대(전남도 문화재자료 제138호) 등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펴볼 수 있다.

목포시는 유달산을 명승으로 지정해 동식물을 보호하고 향후 보수·관리 등에 국가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해안가에서 바라 본 목포 유달산 전경. 목포시는 일등바위 등 유달산을 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목포시 제공>

유달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는 역사와 민속 등 인문환경·식생, 경관 등 자연환경, 유달산의 명승 지정에 대한 가치·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유달산 명승 지정을 통해 목포의 랜드마크인 유달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풍 부한 문화유산과 뛰어난 풍광을 관리·보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 moon@kwangju.co.kr

신안군 '전국 최다·최장' 방조제  
한국기록원 공식 기록 인증받아



신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긴 방조제를 보유한 것으로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을 인증받았다고 7일 밝혔다.

신안군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 특성상 바닷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방조제를 축조해 왔다. 그 방조제 수가 547개로 전국 1673개의 33%를 차지하고, 전체 길이는 276km로 전국 1195.7km의 23%에 달한다.

최단 40m의 논지 방조제부터 최장 5.1km의 도락 방조제까지 547개다. 현재는 시대에 발맞추어 방조제의 기능을 확대해 미래 관광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걷는 즐거움이 있는 해안도로·자전거도로 등 특색있는 코스를 만들고 있다.

한국기록원 기록증서서비스팀은 신안군에서 제출한 방조제관리 현황과 항공사진, 실물사진, 제3자 확인서, 기록도전 개요서 등 기록 인증 자료를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 관내 최다, 최장 길이 방조제 분야의 새로운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증을 확정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영광 찰보리산업 '농촌융복합 우수사례' 전국 대상 수상

강진 뷰티팜 '수국'·담양 메타로드 '딸기' 경영체 부문 최우수상

영광군 찰보리산업이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영체 부문에서는 강진의 농업회사법인 '뷰티팜'과 담양의 '메타로드' 영농조합법인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최한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광군이 찰보리산업을 주제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농업회사법인들끼리 겨루는 강진의 농업회사법인 '뷰티팜' (인증 경영체 부문)과 담양의 '메타로드' 영농조합법인(민인증 경영체 부문)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대회는 1차 농업생산과 2·3차 산업이 융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해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와 경영체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광군은 찰보리를 소재로 생산부터 제조·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에 이르는 융복합화 실현을 위해 2012년 보리수매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부터 보리특구 지정, 지리적표시제 등록, 향토산업 육성, 6차산업지구 조성, 새싹보리 신소재 산업화 등 영광군이 노력해온 과정 및 성과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리 생산 기반 및 가공산업을 바탕으로 영광군 보리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의 농업회사법인 '뷰티팜'은 2009년 수국재배를 시작해 2011년부터 일본 등 글로벌 시장으로 수국을 판매하고 있다. 수국 생산(1차)은 물론 수국차·압화 등으로 가공(2차)과 화훼체험·FUSO농박 등 다양한 체험관광(3차)을 통해 꽃으로 농촌 융복합화를 실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발생으로 화훼산업의 어려움을 언택트 사회에 맞게 창의적인 상품구성과 온라인 판매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농촌융복합화 사례이다.

담양 '메타로드'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4년 설립 이후 담양 주요 관광지인 메타세쿼이아길 안쪽에 농촌체험형 카페인 히어로하우스를 운영하며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한가위명절선물전에서 영광군이 '영광찰보리 제품' 판촉 활동을 하고 있다.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담양군이 자체 육종한 '죽향 딸기'를 이용해 딸기전빵·딸기쿠키 등 차별화된 가공품을 만들어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내는 등 성공적인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이뤄냈다는 평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종윤·남철화·노영찬 기자 jylee@

영암읍 2883세대 가스 공급  
영암군-목포도시가스 업무협약

영암군은 지난 6일 목포도시가스(주)와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동평 영암군수와 정경호 목포도시가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목포도시가스는 자체 재원과 도비와 군비를 받아 총사업비 127억원으로 2022년까지 삼호읍 세한대학교에서 영암읍까지 35.4km 관로를 매설하고 지역정압기 1개 설치한다.

영암군은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예산지원, 토지의 사용 등 각종 인허가·민원사항 신속처리 등 행정지원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영암읍 소재지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면 확정 수요 2776세대는 물론 추가 공급지역 107세대에 연간 총 에너지비용 29억원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전남 도내 균형 소재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하나인 영암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서간 지역 균형발전의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면역력에 좋은 완도 전복이 추석 선물로 인기를 끌었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추석 명절 전복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유통 업체뿐만 아니라 산지 양식장에서도 전복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 상한기를 기록했다.

완도군 농수특산물 중계소평물인 '완도군이습'의 전복 판매량이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이습의 지난해 추석 기간 전복 택배 발송

## 없어서 못 판 완도전복...추석 선물용 인기 '폭발'

중계소평물 '완도군이습' 판매 지난해보다 61% 증가

건수는 892건이었으나, 올해는 1824건으로 판매 금액은 7900만원이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전복 발송 건수는 전년 추석 기간 대비 53% 증가한 18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복(6~10미)의 경우 주문량보다 물량

이 부족,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대복 품귀현상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막혔던 중대복(11~15미)이 소진되기도 했다.

이번 전복 품질 현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명절 가족, 지인 간의 만남이 줄어드는

대신 선물을 보내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과 서울시 등에 완도군 전복 생산자 단체와 어민들이 뜻을 모아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전복을 보낸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 좋은 완도 전복이 추석 선물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완도=정은조 기자 ejhung@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